

자연유산 공동 학술연구 협력 “현안사업 추진 힘 모으자”

무주군-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경북대 자연사박물관, 협약 체결

3일부터 무주군에서 국내 유수 민·관 합동 연구기관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가 실시된다.

지난 10년 간 국내 주요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연구를 수행해 온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 신청접수를 받아 무주군이 선정되면서 진행하게 됐다.

무주군은 이날 오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을 비롯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의 생물상과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확보를 위해 4개 기관이 자연유산 분야 교류협력, 연구자료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사대상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3개소(무주읍 가곡리 가림마을,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무풍면 금림리 울림리마을)와 명승 2개소(무주 구전동 일사대/파회·수심대 일일)를 비롯해 2개소(백운산 생태관광숲, 갈골 반딧불이 서식지) 등이다.

공동 학술조사는 협약식 당일부턴 무주군 내 전문연구자들을 포함한 협약기관들과 연계된 12개의 민·관기관의 40여 명의 전문연구자들이 조사지역에서 각 분야별로 조사연구를 시작하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회차별로



무주군은 3일 오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을 비롯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5일 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학술연구 결과는 내년 4월 말 공동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탐사체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으로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에 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여의 기회도 마련된다.

조사기간 중 관내 희망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연유산을 탐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민을 비롯한 신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조사성과를 정리, 대중들을 상대로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 전시를 무주군충남박물관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공동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전시물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 및 자연사 자료의 가치를 알리고 대국민 향유권 제공으로 무주가 부유하고 있는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국가 암검진 ‘간암’ 검사 추가 실시

무주군이 내과전문의 진료 범위 확대 및 초음파 의료장비를 확충함에 따라 간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기존 국가암검진 3종(위암, 대장암, 유방암)에 간암이 더해져 총 4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로써 국가 암 검진은 6종이나 종합병원급 검사만 가능한 폐암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로 미 실시 되는 자궁암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 검진이 가능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40대와 50대에서 암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간질환 고위



험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만성 B형 간염환자 등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6개월 마다 간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할 경우 간암 사망률을 37% 감소시킬 수 있어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의료원은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 대해 간암검진실에서 접수 후(사전 예약 필수) 간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하고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있으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과전문의 상담 및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간암은 전조 증상이 없어 이미 알아챘을 때는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간암 및 다양한 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의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진료와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청원 월례조회서 지역발전 위해 주문

황인홍 군수는 3일 2024 전라북도 국가예산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등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황 군수는 무주군민의집에서 개최된 4월 청원 월례조회에서 “지난달 ‘새로운 전북 성장시대’ 주제로 열린 무주군과 함께하는 도지사 방문을 통해 무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고령화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를 드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도지사 방문을 통해 전라북도에 건의한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후속조치들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황 군수는 또 “4월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반복되는 잔혹한 달이기도 하다”라며 “특히 무주군은 산림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면서 “산불감시원의 기동순찰 강화 등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황 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한 만큼 농업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도 일손 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적극 대응하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무주다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발굴 △2023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응 △국가공모사업 선정 적극 대비 △각종 행정사항 홍보 노력에 철저지 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인홍 군수는 평소 남다른 사랑감으로 군민에게 나눔과 봉사 실천하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아리수 김기용 대표와 명 낙지사랑 이명식 대표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읍 소재지 내 자투리땅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진안군은 3일 진안읍 소재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경관 개선을 위해 빈 집터, 내재지 등 방치된 자투리땅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투리땅 조성사업은 최소 1년 이상 건축 또는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 정리로 임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으로 제공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1면당 1만원(월기준) 또는 해당 부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분절 해소와 도시경관 개선에 동시에 기여하게 된다”며 “행정은 예산 절감을 주민에게는 수익과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장수군이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인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기간 군은 읍·면 별 지정된 요일(△장수읍·장계면 월요일~금요일 △산서면 월요일 △변안면 화요일 △천천면 수요일 △계남면 목요일 △계북면 금요일)에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납부 후 10시부터 16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야외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병으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특히 SFTS의 경우 4월~11월에 주로 발생하고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농작업뿐만 아니라 등산, 나들이 등 야외활동 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군은 지난 2월부터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및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야외활동 시 △긴 팔상의 긴 바지,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차단하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풀밭, 풀숲에 옷을 벗어두거나 그대로 앉지 말고 돛자리 등 준비하기 △귀가 후 씻고 빨래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초기에 나타나는 발열, 두통, 고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한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농번기,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진안홍삼 기업 지원 수혜기업 모집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는 3일 2023년 진안홍삼 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안홍삼 기업지원사업은 HACCP인 증업체의 재인정 및 사후평가를 대비한 사후관리 지원과 진안홍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고급화하여 진안군 관내 홍삼 가공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진안=우태민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